

어린이 책꽂이

▲목요일의 사총사=늘 어울려 다니는 또래 여자 아이들 네명이 겪는 우정과 갈등, 오해, 질투 등을 현실감있게 다뤘다. 주인공 아이아이, 유키포, 꽃코, 오노자키는 늘 함께 어울리는 4총사다.

(시공주니어·7천원)

▲광광 따따 우탕이네=어린 동생과 오빠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생활그림책.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보여지는 갈등과 해결방법이 담겨 있다.

(웅진주니어·9천500원)

▲어린이를 위한 과학자 이야기(전 3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궁금해질 수 있는 의문들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과학책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21세기의 우주과학까지 이어진 과학자들의 신기한 발견들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다.

(파랑새·각권 9천원)

▲10살에 꼭 만나야 할 100명의 직업인=21세기 리더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꼭 읽어야 할 직업인 100명의 경험담이 소개되었다. 책 속에는 해당인물이 왜 그 직업을 선택했는지, 그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세하게 담겨 있다.

(조선북스·1만3천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요?=아이들이 생활속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을 알 때는 따뜻하고, 유치원에 들어가 처음으로 단체생활을 하게 된 주인공 톰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일깨워준다.

(시공주니어·7천원)

7일간의 달콤한 '철학 여행'

필로소피컬 저니 서정욱 지음

수천 년 동안 유희로 흘러온 철학이라는 큰 바다. 그 도도한 흐름 위에 신학, 역사, 수학, 물리학, 법학 등의 범선들이 떠다닌다. 이런 풍경들은 씨실과 날실로 곱게 얽혀져 철학이라는 바다로 떠나는 아름다운 크루즈 여행 코스를 만들어 낸다.

사색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철학'을 쉽게 풀어낸 유쾌한 철학안 내서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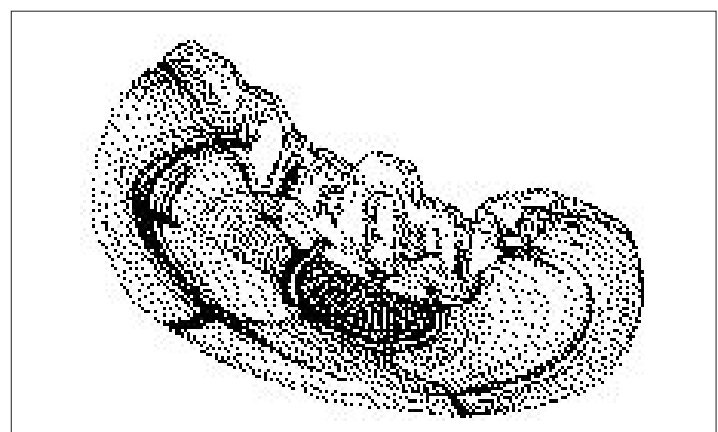
철학자 서정욱 교수가 쓴 '필로소피컬 저니'는 주인공이 무지개 색 일곱 개의 방을 7일간 여행하며 "세계의 아르케(arche·원리)가 뭘"이라고 생각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부터 철학적 해석학을 창시한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가다머까지 서양철학사를 배워 나가는 과정을 소설 형식으로 구성한 책이다.

"이 문은 입구입니다. 출구는 따로 없습니다. 이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안에 있는 모든 성을 차례로 돌아 본 다음 나와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성을 돌아보는 순서는 무지개이며, 모든 성을 다 구경하는 데 얼마가 소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 판타스틱한 철학여행을 시작해 보자. 철학의 역사를 따라가는 이 여행은 주인공 필로소스(사망)와 소피아(지혜)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철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때론 철학의 철학을 논한다. 그리고 철학의 변천사를 살펴본다.

7일간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 신전 같은 어마어마한 건물 빨간 방을 찾아 들어가면서 시작된 첫날은 그리스·로마 철학을 경험하고 둘째 날은 베네딕트 수사의 안내로 신학의 시너가 되었던 중세철학을, 셋째 날은 중세에서 근대사회로 가는 길목인 르네상스 철학을 탐닉한다. 시대를 넘어 넷째 날은 이성이 숨쉬기 시작한 근대철학을, 다섯·여섯째 날은 계몽주의·독일 관념론 철학, 19세기 철학을



고대 그리스로마시대 철학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아고라.(삽화) 소크라테스는 늘 아고라에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로마시대 철학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아고라.(삽화) 소크라테스는 늘 아고라에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조선 후기 문예부흥 주도 중인들의 삶

조선의- 허경진 지음

조선후기 최고의 출판편집인 장훈, '달마도'를 그린 김명국, 이용 후세의 화가 변박, 침술의 대가 허입, 새로운 해시계를 만든 천문인 김영, 이들은 모두 중인 출신이다. 조선시대 양반과 평민 사이에 위치한 '경계인'이 주인공이다.

'조선의 르네상스인 중인'은 조선 정조 시대 문예 부흥과 근대화를 주도했던 중인들의 삶을 통해 중·후기 조선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중인은 의료·법률·금융·외교·천문과학·언론 등 전문직은 물론, 미술·음악·문학 등 예술분야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신분사회의 질곡에 맞서 시대를 끌어안은 전문가의 모습으로 소개된다.

저자인 연세대 국문과 허경진 교수는 "조선의 문예부흥기였던 정조대왕 시대도 그 뒤안길에서 중인이 르네상스인으로 활동하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며 "전문가의 시대에 중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김명국·1만1천원)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재일교포가 쓴 다섯편의 영화 소설

영화처럼 가네시로 가즈키 지음

이준기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플레이, 데디, 플레이'와 'GO', '레볼루션 NO 3' 등의 저자인 가네시로 가즈키가 소설집 '영화처럼'을 펴냈다. 이번 소설집에는 영화를 매개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소설 다섯편이 실렸다.

수목작 '태양은 가늠'의 용일과 나는 영화를 통해 우정을 회복하고, '정무문'의 주인공인 한 미방인은 이소룡의 동명의 영화를 보고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한다. 또 '사람의 삶'에서는 가족들이 영화 '모마의 휴일'을 통해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며 끈끈한 정을 나누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밖에 '프랑키와 자니', '베일 라이더'가 수록됐다.

가네시로 가즈키는 재일교포로는 처음으로 나오기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다.



이준기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플레이, 데디, 플레이'와 'GO', '레볼루션 NO 3' 등의 저자인 가네시로 가즈키가 소설집 '영화처럼'을 펴냈다.

수목작 '태양은 가늠'의 용일과 나는 영화를 통해 우정을 회복하고, '정무문'의 주인공인 한 미방인은 이소룡의 동명의 영화를 보고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한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이병욱 '창조적 디자인 경영'

문화산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러한 요청을 들을 때마다 고민하게 된다. 문화산업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책이 무엇이 있을까. 항상 대답은 어떤 책이든 문화산업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니 마음놓고 읽고 싶은 책을 읽으려는 것이다.

'제논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다.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나로서는 책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재로 보인다는 뜻이다.

몇 해전 선공적인 인기를 끌었던 '침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케네스 브랜차드)의 경우만 해도 모두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 그러나 나에게도 그 책은 미국의 씨월드가 가진 시스템과 대중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창조적 디자인 경영'(이병욱)의 경우는 '제논의 안경'에 딱 걸맞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 사회를 넘어 문화의 시대, 꿈의 사회라는 말들이 넘쳐나고 있다. 창의력과 상상력이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한다. 그러

문화산업의 원천 '디자인'



나 어떻게 꿈의 시대에 앞서 갈 수 있는지, 창의력과 상상력을 문화에 어떻게 접목해 아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문화산업 종사자에게 있어 지침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패션 위기의 시골 동물원인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일본 최고의 동물원으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일상적인 것들에 창조적인 문화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배워볼 수 있는 것이다.

문화산업은 일견하기가 매우 가벼워 보임과 동시에 추상적으로 느끼기 쉽다. 어느 지역에서나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문화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창조적 디자인 경영'은 문화산업 종사자들에게 있어 필독서라 할만하다.

이 책은 문화산업이 단순히 하나의 독립된 산업이 아닌 관광, 교육, 산업디자인, 경영 등 모든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허브 산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 산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개별적인 산업 간의 연결을 도와주는 유희유이차 접착제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실이 하나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성공은 대도시의 동물원처럼 대규모의 시설 투자나 자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지역만의 특색과 동물원에서 관광객이 동물을 구경하는 것이 아닌 동물이 관광객을 구경하는 입장의 도치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경험 가치를 수목적인 관람객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며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다.

지역문화산업의 미래는 여기에 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처럼 대규모 시설이나 투자를 통해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책은 뽀빠이원 황새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지역문화산업의 경쟁력은 지역 고유의 색과 상상력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만났을 때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김기훈 <재전문화산업진흥원장>



신저택매도지시미리신아개발라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9기 원생모집

Table with 4 columns: 실전경매, 이성근교수, 인사집행법, 연재호교수, 종류별투자, 박중성교수, 토지특강, 정용현교수, 권리분석, 김남인교수, 낙찰사례분석, 안중현교수, 리노베이션, 양은열교수, 인도 및 명도, 조재팔교수, 유치권/지상권, 김홍식교수, 임대차보호법, 이성실교수

- 모집기간 : 2008년 8월 27일 ~ 9월 25일 (09:00~17:00)
재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본교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2매
개강일 : 2008년 9월 26일(금) 오후 6시 (3개월 과정)
수업시간 : 주간반 2시~5시 / 야간반 7시~10시

무료 공개강좌

- 일시 : 2008.9.17(수), 2008.9.24(수) 오후 2시 / 7시
장소 : 호남대 행정대학원 (쌍촌동 본관)
접수방법 : 전화예약 (선착순 마감)
☎ 062) 381-4986, 370-8336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국 부동산경매사협회 후원

부동산 경매계의 자부심! 법원경매 대중법률(주) T.062)229-9900 010-3619-1214

Table with multiple columns: 아파트, 빌라·오피스텔, 다가구·행동, 숙박시설, 주택, 농가주택·시설, and others. Each section lists location, area, and price.

수완 부동산 컨설팅

H·P : 010-5714-1114 (하남공단 3번로 / 수완지구 앞)

- ▶산림통 자연복지 - 전지공고 ~ 보존지역 사이 약 6,000㎡ - 주유소, 화물차고지, 물류창고/분할가능
▶임목지구 고급주택가 부지 - 롯데A, 입산초고 서쪽 약 380㎡ - 고급주택 밀집지역 / 별도 토공사 불요
▶단독주택 매매 - 은안동 중앙여고 ~ 문화예술화관사내, 단지 약200㎡ 2층주택 / 1층 주인집 2층빌도 출입 / 2구구 임대중 정원수, 연못 관리상태최상 / 최신타이틀리 개보수 완료
▶답안 관리지역 일야 - 청평 23,000㎡ / 폭9m진입로확보 - 청대, 일곡에서 10분 거리
▶원룸매도 (수익률 약15%) - 도산역세권 / 원룸17실,쓰리룸1실 - 매대기493천만원 / 실무시22억3천만원 - 보증금2억, 월세280만원
▶수완지구 - 초대형화원 최고인식 확보 - 아파트 분양로 임대 다수 확보 (현관, 코트룸, 우미, LG지아...)
▶공장 매매 / 임대 - 하남, 소촌, 평등공단 매대 임대대금 손쉬우 접수 & 처리중
▶기타 - 수익성 좋은 10억 전후 건물구입/매수자 대가중